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봉주르빵집', 황금 알바 옹성우 X 이주빈의 특급 활약부터 역대급 신메뉴 완판까지!

2026. 6. 13.







쿠팡플레이 예능 <봉주르빵집>이 새로운 알바생들의 상큼한 에너지와 한층 더 끈끈해진 패밀리십을 장착하고, 전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분 좋은 힐링을 선사했다.

<봉주르빵집>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문을 연 국내 최초 '시니어 디저트 카페'를 배경으로 인생의 맛을 아는 어르신들과 행복의 맛을 아는 빵집 식구들이 달콤한 위로와 온기를 나누는 힐링 베이킹 예능.

지난 12일(금) 공개된 6화에서는 주말 영업 준비에 나선 '봉빵즈' 식구들의 활기찬 모습과 함께 마을 주민들의 정다운 일상이 그려지며 따스한 온기를 전했다.

이날은 주말 영업을 맞아 특급 지원군들이 잇따라 등판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먼저, 최근 재결합 소식으로 뜨거운 화제를 모은 워너원 멤버이자 배우 웅성우가 새로운 알바생으로 합류, 김선호에게 스파르타식 밀착 인수인계를 받으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첫 알바에 잔뜩 긴장하면서도 청소부터 메뉴판 작성까지 매뉴얼대로 척척 해내는 '웅드로이드'의 면모를 뽐내며 홀에 빠르게 스며들었다.

이어 합류한 이주빈 역시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폭풍 친화력을 발휘했다. 매장에 들어서는 어르신들을 향해 살갑게 달려가 인사를 건네고, 눈높이를 맞춘 다정한 대화로 분위기를 이끄는 등 손님 영업에 대성공하며 앞으로의 활약에 기대감을 치솟게 만들었다. '사장님' 김희애는 웅성우, 이주빈과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며 따뜻한 리더십으로 주말 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주방에서는 '제빵왕' 차승원의 하이 텐션이 폭발했다. 보조 셰프 이기택의 폭풍 성장에 대견함을 감추지 못한 차승원은 냅다 격한 포옹을 나누며 주방을 칭찬 릴레이로 물들였다. 차승원이 "그거"라고만 말해도 척척 알아듣는 역대급 찰떡 호흡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환상의 팀워크 속 고난도 신메뉴 제조에 돌입, 비주얼부터 시선을 압도하는 역대급 신메뉴 라인업으로 현장의 감탄을 자아내며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무엇보다 이날 가장 큰 감동은 어르신 단골손님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선순환이었다. 옆집 어르신이 직접 담근 김치를 깜짝 선물로 들고 빵집을 찾아와 몽클함을 더했고, 인생 첫 프랑스 디저트에 엄지를 치켜세운 초등학교 동창 할아버지들부터 구순 생신을 맞아 가족과 재방문한 할아버지까지 가슴 따뜻한 에피소드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내일 노인복지회관 가서 엄청 자랑할 거다”라며 아이처럼 기뻐하는 어르신의 해맑은 미소는 <봉주르빵집>이 주민들의 편안한 사랑방이 되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정성 어린 디저트와 무해한 웃음으로 동네 어르신들의 일상에 가장 화려한 봄날을 선물하고 있는 힐링 예능 <봉주르빵집>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